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고 관 우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근 영

2020년 8월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고 관 우

이 근 영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8월

이근영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위 원 _____ ㉠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20년 8월

The Impacts of Social capital and Aging Preparation of Middle-aged Jeju Women on Successful Aging.

Geun-Young Lee

(Supervised by professor Kwan-Woo K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Welfare

2020.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Public Welfare

GRADUATE SCHOOL OF SOCIAL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II. 이론적 배경	5
1. 중년 여성	5
1) 중년기의 개념	5
2) 중년여성의 특성	7
3) 제주여성의 특징	9
2. 사회적 자본	12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12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16
3. 노후준비	22
1) 노후준비의 개념	22
2) 노후준비의 유형	23
4. 성공적 노화	28
1) 성공적 노화의 개념	28
2)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32
III. 연구방법	35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35
2. 연구모형 및 가설	36
3. 측정도구	37

1) 측정도구	37
2) 신뢰도 분석 결과	39
4. 자료분석방법	39
 IV. 연구결과	 41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결과	41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분석	44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노후준비, 성공적 노화의 차이	45
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53
5. 사회적 자본과 노후준비의 하위요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55
 V. 결론 및 제언.....	 57
1.결론.....	57
2.제언.....	59
 참고문헌.....	 61
Abstract.....	73
<부록> 설문지.....	75

〈표 목차〉

〈표 1〉 선행연구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정의	15
〈표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17
〈표 3〉 국내연구자들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32
〈표 4〉 측정도구의 신뢰도	37
〈표 5〉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1
〈표 6〉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43
〈표 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44
〈표 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하위변인의 차이	47
〈표 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의 차이	48
〈표 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하위변인의 차이	50
〈표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	51
〈표 12〉 측정변인의 상관계수	53
〈표 13〉 사회적 자본과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55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모형	34
-------------------	----

국문초록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이 근 영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고관우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과 노후준비 실태를 파악하여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노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20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거주자 중 40세에서 59세까지의 기혼 중년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배부된 설문지 총 300부 중 회수된 설문지는 282부였고, 불성실하게 응답된 22부를 제외하고 26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5.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노후소득보장으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이는 노후소득을 공적 연금에 의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 공적연금의 준립기반을 강화하여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운데 월소득이 높을수록 신뢰수준이 높았고, 교육수준과 월소득이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인인 규범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40대 보다는 50대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더 신경 쓰고 있었고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았으며 월소득이 대체로 높을수

록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은 학력과 월소득이 높을수록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자본과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 중 규범과 네트워크&참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에서는 신체적, 정서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풍부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켜줄 지역 및 국가차원의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제주지역 중년여성들의 사회적 자본의 증대를 유인하는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존재로 인한 다양한 관계망을 위한 개인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주제어 : 사회적 자본, 노후준비, 성공적 노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UN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미만일 경우 고령화사회, 65세 이상의 인구가 14%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20%가 넘을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기준 14.9%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9).

노인인구가 많은 제주지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이보다 앞서 이미 2017년에 전체 인구의 14.0%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 14.5%, 2045년에는 34.9%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또한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고령화의 심화,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55-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시기 도래로 2020년부터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가 급속히 진행되어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19). 이러한 제주지역의 고령화 속도는 전국의 타 시·도와 비교할 때 2~3년 이상이나 빠를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80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고령층 인구 구성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승환·김진영, 2010). 이러한 평균 수명 연장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의 새로운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 주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평균 수명의 연장은 인생주기 중 중년기가 차지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중요해지고 있으며(변외진·김춘경, 2006),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중년기 이전부터 노후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중년층은 노년기를 건강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보내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게 보임에 따라 성공적 노화는 중년기 성인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김연지 외, 2018).

성공적 노화란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안녕의 수준에 도달하는 상태로(Gibson, 1995).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수명과 건강 등의 생물학적 측면 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의 측면, 개인의 인지적·사회적 생산성 및 효율성을 포함하는 삶의 긍정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박경란·이영숙, 2002). 또한 성공적인 노화는 기존의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바라보던 노화의 개념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노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연할 수밖에 없는 노화를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지혜롭게 맞이하여 최적의 노화로 만드는, 잘 늙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형란, 2011).

전 생애 발달 관점에서 노화라는 것을 노년기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인생 주기에서 진행되어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본다면, 성공적인 노화는 예비 노년층인 중년기에 그 준비를 시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김연지 외 2018).

중년기는 인생의 전반에서 후반으로 이행되는 시기로 중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노년기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한경혜·노영주, 2000). 그러므로 앞으로 연장된 노년기를 보내야 할 중년층의 성공적인 노년기 적응을 위해 중요시되는 성공적 노화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맞는 노후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노화준비가 사회적 트렌드라고 하지만,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임신, 출산, 육아, 가사노동 등으로 경제활동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며 여성노인의 빈곤화를 예상할 수 있다(장미혜 외, 2013).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취약한 계층이며 노년기가 되면 더욱 취약함을 드러낸다. 중년기 여성의 노화준비는 이와 같은 경제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맹점을 파악하여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년기 이전부터 노후에 겪게 될 수 있는 신체 및 심리적, 사회적 변화의 특성 및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변화에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2015, 김영남). 노화준비는 전통적으로 신체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져오듯 세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회 교류적, 정서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즉, 자신의 노년생활을 다양한 측면에서 미리 준비하고 노년기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김수영·이강훈, 2009).

이와 같은 노후의 삶의 질은 흔히 OECD 기준 상대적 행복지수에 비교될 수 있으며(김희연 외, 2013; 이와진·정영숙, 2018),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사회적 자본은 성공적 노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일 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을 의미한다(Bourdieu, 1986).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많이 가진 개인이 그렇지 못한 개인보다 더 효과적으로 성공적인 노화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신뢰, 공유가치와 같은 행위자들 간의 사회적 상호관계에 기초하며, 사회적 교환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효율성 향상의 자원으로 사회적 자본의 증대를 위한 개인적·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Putnam, 2000). 이에 고령화 시대에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사회 시스템에 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촘촘하고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사회적 자본은 중년여성의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공적인 노화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더라도, 성공적인 노화를 나타내는 삶의 지표는 문화적인 특수성도 지니게 된다. 문화가 환경적응의 메커니즘이라는 측면(유철인, 1986)에서 제주문화를 한국 문화 안에서 도서문화라는 독특한 하위문화로 볼 수 있다. 예로부터 육지와 다른 제주 여성의 특성이 주목받아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여성의 강인성, 독립성, 근면성이 유달리 부각되는 것은 제주사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문화적 독특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제주지역의 여성은 최근에도 남성보다 더 많은 사회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환경에서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노후준비는 성공적 노화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박윤희, 2017).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보고서(2019)에 따르면 15세 이상 제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7%로 전국 평균 52.9% 보다 높았다. 또한 제주지역 자원봉사자 수도 2018년 기준 남자 10,497명, 여자 16,098명으로 자원봉사 참여도도 남성보다는 높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개인존중의 원리가 일상생활에 잘 녹아 있는 강인하고 부지런한 제주 중년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노후준비를 살펴보고 성공적 노화와 관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강기은,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제주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만 약간 있을 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중년층에서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년 여성(40세~58세)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의 수준과 노후준비 실태를 파악하여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성공적 노화와 함께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제주 중년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노후준비, 성공적 노화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사회적 자본은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노후준비는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중년여성

1) 중년기의 개념

중년기는 인생의 전반에서 후반으로 이행되는 시기로 중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노년기 삶의 모습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한경혜·노영주, 2000). 인간 발달은 연속적 변화의 과정으로 심리적·환경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중년기에 관한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아 학자마다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홍금희, 2014).

Jung(1954)은 중년기에 대한 구체적 개념을 최초로 정리하고 중년기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소수의 심리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약 40세에 시작되는 중년기는 인생의 전반에서 후반으로 바뀌는 전환점이며, ‘인생의 정오’인 40세를 기점으로 성숙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였다.

Havigurst(1972)는 인간의 생애주기를 발달과업에 따라 구분하며 중년기를 35세부터 60세까지로 설정하였다. Levinson(1978)은 생애주기를 4단계로 구분하여 신체적 능력은 다소 쇠퇴하지만 사회적 책무는 더욱 증가하는 시기로 40세부터 45세까지 중년 전환기가 시작되어 60세까지를 중년기로 구분하였으며, Hurlock(1984)은 정신적·신체적 변화에 의해 중년기가 시작된다고 하여 인습적으로 40세부터 60세까지로 보았다. Gould(1978)는 중년기에는 지금까지 자신을 속박해왔던 올바르지 않는 견해와 헛된 생각을 극복하고 인생의 어두운 측면을 수용하는 변화과정을 통해 비로소 내적 자아에 대한 깊은 성찰이 가능해지고 운명론에 규제당하거나 속박당하지 않는 인생의 새로운 의미가 구축된다고 보았다.

또한, Sadler(2006)은 오늘날의 21세기형 중년들은 옛 것과 새 것의 경계선상에 살고 있으며, 개인적인 성장이 멈추는 시기가 아닌 숨겨진 재능을 찾아내고 새로운 변화를 도전하는 시기로 제2차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 즉 서드 에이지(3rd Age)라고 명명하였다.

가족주기를 기준으로 연령과는 관계없이 막내자녀가 독립하기 시작하는 시기로부터 직업생활에서 은퇴하는 시기까지를 중년으로 구분하는 하는 방법이 있다(Duvall, 1997; 신순옥, 2012). 가족생활 주기상의 중년기는 자녀양육 역할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 존재로서 자아의 욕구와 자아성장 발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실업의 장기화와 그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결혼한 자녀에게 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녀의 출산시기에 있어 개인차가 크므로 자녀의 나이를 적용하여 중년기를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장성희, 2008).

중년기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노부모의 성인자녀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관심과 신체적 및 인지적 변화의 경험과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인생 단계에서 중년층으로서 일로부터의 출구 전략, 노후 준비 등 사회적 역할로부터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다음 시기에 대한 준비를 위한 과업과 욕구를 가지는 시기라고 하고 있다(정경희 외, 2013).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성인기를 지나 전환의 시기(김남순, 2009)이자 위기의 시기(정태연·정경숙, 2007) 등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중년기는 인간의 생활주기 상 개인적·사회적 활동이 절정에 있으면서 동시에 인생 후반부로의 진행을 의미한다. 이는 자녀의 성장과 가족생활의 안정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고, 은퇴준비를 하여 노후의 생활을 위한 대책을 미리 계획, 준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이다(조추용 외, 2009). 또한 중년기는 신체의 기능의 변화와 약화, 가족 관계의 변화, 직장에서의 위치 변화를 경험하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이다(김경진, 2011).

이상 연구자들의 중년기 관점을 종합해 보면 중년기는 전 생애발달관점에서 신체적 노화 등으로 인해 위기의 시기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원숙해지고 사회적 활동이 절정에 달한 시기이다. 또한 중년기는 창조적인 변화를 시도

하는 인생 후반부로의 전환기로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하여 노후생활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발달과제가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중년기 연구는 행복의 의미와 삶의 질에 관심을 갖는 긍정심리학에 영향을 받아 중년기를 위기의 시기이자 동시에 성장의 시기라는 통합적 관점으로 인식하면서 중년의 위기 극복과 긍정적 적응, 심리적인 성장 등에 대한 심리적 역동성의 적응 및 성공적인 발달적 관점에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이옥희·이지연, 2012; 안태용, 2013).

중년기 관련 선행연구에서 중년기의 연령 범위를 살펴보면 30~50세(김태현·김양호, 2003; 이현숙, 2009), 40~59세(김명자, 1989), 40~64세(박선영, 2013), 45~65세(김미숙, 2018)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중년기를 나타내는 시점이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전 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중년기를 정의할 때, 연대기적 연령을 기초로 구분해야 하며 동시에 중년기의 다양한 맥락, 가용한 자원과 그 배분, 관련된 기회와 도전 등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연구대상인 중년여성의 연령을 40세에서 59세까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2) 중년여성의 특성

인간의 전 생애를 발달단계에 따라 분류할 때 중년기는 연속적인 성장 발달 과정 중 한 단계이다(김민경, 2003).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 여성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9.9%이며, 전체 여성 인구 중에 40-50대의 중년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5%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가장 높다. 이러한 중년여성의 비율은 1990년대에 비해 2배 증가한 수준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통계청, 2019). 이 시기에 중년 여성은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물질적이고 외부 지향적인 자아를 내적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특징을 보인다(이우경, 2008). 또한 중년기는 외모의 변화, 신체적 노화,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의 변화 등 다양한 문제를 직면하는 인생의 제2 전환기로 다양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는 시기이다(Bellipanni et al., 2005). 이 시기에 중년 여성은 신체·심리·정서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중년기 여성이 신체적 특징은 노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탄력을 잃어가는 피부와 깊어진 주름으로 외모의 변화를 경험한다. 또한, 생리적인 작용이 약해져 폐경현상이 나타나고 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신체적·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갱년기를 경험하면서 신체적 노화와 함께 여성으로서 매력이 상실되어 간다고 느낀다. 또한 중년여성들은 호르몬 변화와 노화의 가속도로 인해 만성질환의 발생가능성이 높다(이미숙·주영아, 2016).

중년기의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변화 그 자체보다 그에 대한 원만한 수용의 실패로 생기는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이 더 큰 문제이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신경과민, 우울과 같은 정신적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강청순, 2003). 이 시기에 중년 여성들은 자아개념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내적 성찰과 자아평가를 통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반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좌절감 등 심리적 변화를 경험한다. 또한 퇴직, 부모나 배우자의 상실, 자녀의 독립 등의 여러 가지 생활환경의 변화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직면하게 되는 후기 부모기 및 공허기로 우울, 불안, 고독감, 심한 정신적 위축, 히스테리 등이 나타난다(장춘자·이경혜, 1992). 그리고 가족 구조와 관계의 재조직화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인해 심리적인 분리감도 경험하게 된다(황주연, 2007).

특히 중년 여성들은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불만족을 느낄 때 깊은 삶의 회의와 좌절에 빠질 수 있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관과 신념의 체계가 흔들리며 인생의 목표에 대한 불안과 압박을 경험하게 되고,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감에 따른 소외감과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로 인해 중년 여성들은 인생주기 중 가장 높은 우울빈도와 비율을 경험하게 된다(백인자, 2016)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관계는 가족영역에서 큰 변화를 이루며 자녀의 성장과 독립으로 인한 부부관계의 재정립으로 부부갈등(이은정·성미혜, 2017)과 역할의 변화로 고립감과 위축감을 느끼고, 가족이나 친구의 질병 또는 죽음으로 삶의 무의미함, 허탈감, 공허함,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백인자, 2016). 자녀의 독립과 결혼은 부모의 역할 감소로 이어지고 점차 상실감과 침체감을 경험하며 이로 인한 외로움, 우울 등 정신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박금자, 2000; 서연숙, 2010). 특히 한국인의 경우 자신이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신체화 증상으로 호

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있다(임영희, 2004). 따라서 중년여성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과 봉사활동, 종교 활동,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은 것을 보여(Pruchno et al., 2010; 김연지 외, 2018), 일과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회적 참여활동이 신체적 기능의 한계수준과 건강, 만성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년기부터 노년기에는 사회 활동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Kail and Carr, 2017).

이상과 같은 중년기의 특성을 정리하면, 중년기는 인생주기의 필연적 단계이며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한 시기이다. 또한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정립되고, 외부환경의 변화와 요구로 인한 불균형과 갈등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현대에 이르러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점차 연장됨에 따라 인생주기에서 중년기가 차지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차원에서 고령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준비가 부족하며(정문신·권혜진, 2017), 특히 중년여성은 노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Angus and Reeve, 2006), 현재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적절히 노화에 대처하고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의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하여 중년기를 인생의 결정적 전환기로서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시기로 보내는 것은 이후 노년기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작용하므로 중년 여성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원경립, 2001).

3) 제주여성의 특징

제주도는 예로부터 다른 지방에 비해 돌, 바람, 여자가 많다고 하여 ‘삼다(三多)’라고 불리었고, 여자가 많다는 ‘섬’ 제주에서 여성들은 ‘강인함’과 ‘부지런함’이라는 특성으로 회자된다(김영순, 2013). 이런 배경에는 남성들의 일본 노동시장 진출, 4·3사건에서의 민간인 학살, 한국전쟁에 징용 등의 역사적 요인들(권귀숙, 2011)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남성인구의 과도한 도외 이출을 심화시켜 남녀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남은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강인하고, 부지런한 제주여성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남성이 떠난 자리를 대신하는 오랜 역사과정을 통해 강화된, 피할 수 없는 생존 노동이기도 했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까지 노동이주를 감행해야했던 해녀들이 있었고 사라진 남편들을 대신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제주 미망인들이 있었다. 일제시대에도 해녀항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4·3당시에는 남성들을 대신해 여성들이 마을어귀에 보초를 서는 여성군인이라 볼 수 있는 ‘女丁’이 되어 마을을 지켜내기도 했다. Pieter 목사는 “Korean Repository”에 기고한 글(1899)에서 “제주도는 한국의 시실리이며, 여성들은 조선반도의 육지 여자들보다 더 튼튼하고 훨씬 잘 생겼다. 길거리에서는 남자 하나에 여자 세명이 같이 있게 된다”라고 하여 제주도가 여자 천국임을 말하고 있다(김영돈, 2002). 이는 제주 여성들의 바깥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즉, 여성들의 생계유지에 대한 자신감은 남성에게 경제적 의존심을 그만큼 덜어줌으로써 철저한 자립심을 기르는 동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의 가족형태는 단순히 지리적 역사적인 여건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서도 육지부의 전통적 가족과는 서로 다른 양상을 내포하고 있다(김혜숙, 1992). 제주도는 주로 밭농사 위주여서 소규모 가족 단위가 생존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주지역 가족은 산업화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핵가족을 유지해 왔다. 척박한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가족형태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핵가족 형태에서는 가족생활이 부부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비교적 수평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가족 내 여성의 지위도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상당한 자율권이 있다.

이러한 제주지역 여성의 특성은 그들 자신의 삶이나 가족생활에도 그대로 반영된 모습을 볼 수 있다(강기은, 2014). 제주 지역에서의 가계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부부가 제 각각이거나 아니면 여성이 총수입의 관리자가 되는 가정이 많다. 여성이 남편에게서 생활비를 타서 쓴다는 개념이 희박하다. 오히려 남편이 생계책임자로서의 의식이 약하고 부인이 더 책임감을 갖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계비 관리나 부담에 부부 이외의 다른 가족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도 제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살아가는 과정에 부모의 특별한 지원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가족생활에 시부모가 관여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 제주 가계

는 부부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김혜숙, 1999). 부부간의 권력구조에 있어 서로의 결정권이 거의 대등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서, 부부관계의 저변에 남녀평등의식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 이혼과 재혼율이 높다는 사실과도 관련되어 있어서 삼종지도(三從之道)를 따르는 것을 하나의 숙명처럼 생각하는 전통사회의 여성과는 완전히 다르다. 어느 누구에게 예속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여성들의 노동경제력은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독립성에 대한 신념을 갖게 하는 것이다(김혜숙, 1993).

제주지역 가족의 가장 큰 특징(김향원 외, 2000)은 장남이라도 결혼을 하면 분가(分家)시키는 분가주의와 노부모는 노동을 할 수 있는 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강한 독립생활의 의지이다. 제주여성노인의 경우 연로하더라도 거동이 가능한 한 주거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독립하려 한다. 연로하더라도 가능한 한 경제적 자립을 하며, 노동력이 떨어지면 자식의 원조를 받더라도 취사는 고집하여 분리한다. 취사마저 어려워지면 그때 가서야 자식 가족에게 합가하는, 쓰러지기 직전에야 의존할 정도로 강한 경제적·정신적 독립성의 의지를 보여준다(김혜숙, 1999).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된 2019년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제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7%로 전국 평균 52.9% 보다 높았다. 이는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보고서에 나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제주지역 자원봉사자 수도 2018년 기준 남자 10,497명, 여자 16,098명으로 자원봉사 참여도도 남성보다는 높다. 이와 같이 제주지역 여성은 최근에도 남자보다 더 많은 사회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세대 전수를 통하여 비슷한 환경을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즉, 제주지역 여성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검소성, 근면성, 자립성, 강인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인하고 부지런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하여 미리 긍정적인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사회적 자본과 노후준비가 성공적인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적 자본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은(social capital)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한 개인이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되는 자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류태건, 2015).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인간관계 형성의 장소인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생성되는 것은 필연적 사실이다. 사회적 자본이 생성되는 기본 바탕은 혈연, 지연, 학연이다. 개인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사회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각종 단체 및 조직 활동에 참가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는데, 이것 또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배경이 된다(이인자, 2011).

사회적 자본은 사회학이나 정치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며, 학자마다의 개념 정의와 그에 따른 측정방법이 다양하다(김준홍, 2010).

사회적 자본은 가치생산을 위하여 투입되는 생산요소를 중심으로 설명되는 물적 자본,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지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중심으로 설명되는 인적 자본에 비해 추상적인 개념이며, 그로 인하여 개념의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이상일, 2007). 그러나 인적·물적 자본과 같은 고전적인 이론으로는 타인과의 관계나 구성원들 간의 사회참여, 네트워크 등에 기반을 둔 가치생산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 간의 관계를 통한 자원 형성과 사회적 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이정선, 2001).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는 1916년에 Hanifan에 의하여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Chung, Choi and Lee, 2014)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Jacobs, Loury, Bourdieu 등에 의해 체계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Putnam과 Coleman에 의해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Bourdieu, Coleman과 Putnam은 개인과 집단의 정치적, 사회적 행위에 관해 기존의 경제적 모형으로는 적절히 설명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우면서도 적절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김종미, 2004).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최근의 사회과학분야에서 호소력 있게 주목받는 개념 중 하나이지만 사실상 단일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주요 학자의 개념정의와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학술적으로 처음 언급한 Bourdieu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원 간의 지속적 관계를 유지, 지속함으로써 구성원 간의 제도화된 관계를 유지, 인정하게 된 결과물로 각각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잠재적이고 실질적인 유·무형 자원의 합이라고 하였다(최승인, 2016). 개인이 보유한 사회적 자본의 총량은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관계망의 크기와 그 관계망 속에 존재하는 각 개인들이 소유한 경제, 문화, 상징적인 유·무형 자원의 양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최은희, 2007). 다시 말해, 사회적 자본은 공통적 속성을 가지고 영속적이고 유용한 관계에 의해 뭉쳐진 사람들의 총체인 한 집단에 소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원으로서 ‘인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소유한 사회적 자본의 총량은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의 총량이 된다(구혜정, 2002).

Bourdieu는 사회적 자본을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그 관계는 포괄적인 사회관계속에서 형성되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집단 소속이 해당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 자원을 총칭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을 전제로 끊임없는 확인과 재확인함으로 승인 받은, 일련의 지속적인 사교행위를 위한 끝없는 노력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조인근, 2008). 하지만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곧 불평등을 재생산하게 되므로 꼭 선의로만 볼 수 없다는 비판적 관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Bourdieu가 문화적 자본의 개념을 확장시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체계화하였다면 Coleman(1988)은 동시대에 사회적 자본을 연구한 학자로 선행학자들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 사회적 연대 등과 같은 개념을 분석하고 자신의 권위관계, 신

뢰와의 관계사회적 자본이 특정한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두 가지 특징을 공유하는 다양한 실체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하나는 그것들이 모두 사회구조의 일면으로 구성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구조에 속하는 행위자들의 특정 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Coleman은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을 기능적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개인 소유가 아니라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김용학, 2004). 이에 따르면 신뢰 및 신뢰에 기반한 기대와 의무, 사회적 네트워크와 제재 및 효과적인 제재를 동반하는 규범 등 사회구조로부터 오는 다양한 실체가 사회적 자본이 된다(이상일, 2007; 정순돌 외 2012). 그는 사회적 자본 자체보다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에 접근하기 때문에 신뢰나 규범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면 사회적 자본은 어디에서나 존재하게 된다(유석춘·장미혜, 2002). 따라서 구성원 간에 기대되는 역할이나 규범,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원들이 공유될 수 있게끔 작용한다.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을 신뢰, 네트워크, 규범과 같은 사회조직이 특성으로 보았다. 이는 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가능케 한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 자본을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공공선을 용이하게 해주는 집단적 신뢰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영균·최승인, 2016). 즉, 수평적 대인관계는 사회 전반적인 신뢰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구성원의 전체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규범이 형성된다. 이러한 규범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응집력을 강화하고 집단의 안전성을 증대시킨다. 그 과정에서 관계망 속 구성원들은 집단 규범의 내면화와 사회적 자본이라 지칭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들을 형성, 공유하게 된다(황대준, 2006).

정리하자면 Bourdieu는 불평등한 계급의 재생산 과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가져 왔으며 Coleman은 기존의 사회구조 속에서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언급하였다. Putnam은 Coleman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과 국가의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 성장 발전에도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전통 경제 자본과 달리 비경제 자본으로서 신뢰나 네트워크 등으로 자본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한동희, 2014).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앞서 말한 Bourdieu, Coleman, Putnam 외에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사회적 자본의 정의는 <표 1> 와 같다

<표 1> 선행연구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정의

연구자	정의
Bourdieu (1896)	자본의 여러 형태들 중 하나로서 사회 자본을 논함, 친근감이나 상호 인지적 관계가 제도화된 덕택에, 혹은 지속인 연결망의 덕택에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적으로, 혹은 가상으로 얻게 되는 이점이나 기회의 종합
Coleman (1988)	기능에 따라 달리 정의, 매우 다양한 실체로 나타나며 사회구조의 몇 가지 측면으로 구성됨. 그 구종에 속한 개인으로 하여 특정한 행위를 달성하도록 함. 다른 형태의 자본과 같이 사회 자본은 생산이며 그것이 없다면 달성할 없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함. 사회연결망분석의 개념 도구로 발전
Putnam (1993)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와 같은 조정된 행위를 가능하게 함. 그러므로 사회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특징을 가짐, 사회의 효과를 거시 경제 이외에도 그 효과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
Fukuyama (1995,1997)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 협력을 추구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비공식인 가치나 규범, 사회의 효과를 거시 경제 이익 외에도 그 효과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
Woolcock (1998)	한 개인의 사회 연결망에 내재된 정보, 신뢰, 그리고 호혜성의 규범 사회의 효과를 거시 경제 이익 외에도 그 효과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
Nahapier&G hoshal (1998)	개인 또는 사회적 단위가 소유한 관계의 네트워크로부터 생각되는 이용 가능한 실재이고 잠재 인력 자원의 합으로 정의
이기홍 (2005)	비경제 자본으로 문화 자본과 사회 자본으로 보았으며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문화 자본과 사회 자본이 젊을 때에 비해 경제력이 약화되는 한국의 노인들에게 자본으로서 기능함

임우석 (2009)	사회 자본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신뢰, 네트워크, 참여, 규범, 호혜성을 사회 자본의 핵심인 구성요소로 설정
이현기 (2010)	자원봉사가 시민참여의 한 형태로 제도화되어가는 상황임, 이에 따라 사회 자본은 과거와 달리 노인의 자원봉사정책과 관련이 있음. 즉 사회 자본의 증가는 자원봉사활동의 증가를 의미
정선기 (2012)	사회 자본은 지역발전을 위한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공동체의 사회참여 증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음. 지역주민의 이해 소통 확장, 신뢰와 참여 강화,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비용 감소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제고에 기여함을 강조
김도균·정선기 (2014)	사회 기업과 마을기업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본 확장과 형성된 사회자본이 주는 정책 시사점을 밝혔음

출처: 한미선(2019)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그 측정에 있어서, 개념 정의만큼이나 다양한 주장들이 학자들마다 제시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 관련 연구자 중 Uphoff(2000)는 모든 형태의 자본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든 자산으로 이해될 있다고 보고, 사회적 자본의 연구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기 보다는 무엇이 자본을 구성하며, 구성요소간의 연결이 무엇이며, 이 요소들과 그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연택, 2003). 그리고 자원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할 때 해당 자원의 특성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달라질 것이므로, 도구나 수단이 되는 사회적 자원은 그것을 이용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내적 특성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정옥분 외, 2003).

사회적 자본을 단수요인으로 규정하는 학자도 있지만, 다수요인을 통한 복합적 연구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신뢰, 네트워크, 참여, 규범의 4개 요인으로 측정하는 경우거나, 신뢰, 네트워크, 규범의 3개 요인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박희

봉·김명환, 2000; 배병룡, 2005).

아래의 <표 2> 는 선행 연구자들의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에 관한 이론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서구의 선행연구자들의 경우 가장 많이 언급된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는 네트워크, 신뢰, 규범이다. 반면에 한국의 선행연구자들에게서 자주 인용된 사회적 자본 요소는 네트워크 신뢰, 규범 이외에 참여가 포함되어 있다.

상호간의 신뢰, 네트워크, 행동규범, 참여 등으로 이뤄진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사회 간의 효과적인 상호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연결망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김정화,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신뢰와 규범 및 네트워크와 참여 요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사회적 자본 구성 요소

연구자	정의
Bourdieu(1896)	네트워크, 신뢰, 사회적 규범
Coleman(1988)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
Putnam(1993)	신뢰, 규범, 네트워크
Fukuyama(1995,1997)	신뢰
Woolcock(1998)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정보, 신뢰, 규범
Grootaert(1999)	네트워크와 규범(micro, mezzo), 공공제도(macro)
Lin(2000)	네트워크, 자원
Bin의(2002)	네트워크, 결합, 가치와 규범
Chaes&Homemo (2005)	집단 구성원간의 신뢰, 포용, 네트워크, 집합적 행동, 정보와 의사소통 영역
World Bank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과 질의 결정제도, 관계, 규범
OECE(2006)	규범, 가치, 이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출처: 김태호(2015)

(1) 신뢰

신뢰란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이해를 고려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라는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당하고 상대방에게 유의미한 관심을 베푸는 것으로 정의된다(Barber, 1983). 신뢰는 사람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그 관계 속에 존재하며, 신뢰를 통하여 관련 행위자들은 서로 협동, 감시, 통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Coleman(1988)은 신뢰에 대해 친근하고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신뢰와 상호부조와의 관계를 규명한 결과 개방한 사회구조에서는 신뢰가 낮게 측정되었다고 지적한다.

Fukuyama(1995)는 신뢰란 어떤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편적 규범에 기초하여 정직하고 규칙적이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라고 하였다. Yang(2005)은 신뢰에 대한 본질적 요소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위험이나 불확실성하에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사로 이해하였다.

신뢰를 사회적 신뢰와 정치적 신뢰로 구분하기도 한다 (김혜정, 2015). 사회적 신뢰는 사회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호성, 유대, 신뢰, 공감, 관용, 호혜성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사회적 신뢰는 타인과의 관계나 직접적 경험에서 기인하여 발생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반면에 정치적 신뢰 또는 정부신뢰는 정부기관,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의회, 정당, 군대 등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의미한다.

신뢰는 지식과 정보 교환 및 공유, 원활한 의사소통, 각종 활동을 하는 참여를 위한 기본적 행위 유인역할을 한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상호관계는 지식의 전달과 교환이 순조롭게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신뢰의 상실은 협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사회적 도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이진만, 2013).

(2) 규범

호혜성이 기반인 규범은 상호 이익 도모를 위해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이익 공유를 위해 국가 법률과 사회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Putnam, 2000). 집단 내에서 공유하고 있는 호혜성의 규범은 구성원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처벌하고 그러한 성향을 감소시킴으로써 공식적 법제도와 시장질서가 하지 못하는 범위와 정도의 집단 내에서 구성원 간 상호 협조를 가능하게 한다(이재혁, 2005).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에서 용인되어온 행동규칙인 규범은 공공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규범은 교육을 포함하여 사회화나 상호작용 모델, 처벌로써 유지되고 강화된다. 다양한 형태의 규범 가운데 국가에 의한 공식적 법률 집행은 개인의 행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장치가 된다(이민자, 2016). 그러나 법률과 같이 공식적 제도가 아니라 해도 공동체 내부에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비공식 가치나 규칙이 있으며 이러한 것도 이러한 것도 중요한 규범 중의 하나로 구성원 간의 상호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도록 한다(Fukuyama, 1995: 유석춘, 장미혜, 2002 재인용).

Coleman(1988)에 의하면 규범은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여 협력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기도 하고, 범죄적 행동에 대한 제약이나 공동체에 반하는 낭비적 행동에 대한 억제를 통해 일탈행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게 된다(김영미, 2014).

개인 간의 공유된 해석, 표현, 의미의 체계 등을 다루는 것이 규범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은 이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혜택이나 재제를 가하는 것이므로, 일반화된 상호 호혜의 규범은 사회적 교환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다(김지현, 2007). 또한 지역사회의 제도와 규칙의 준수성은 규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제도 안에서의 규범과 규칙이 공정하게 지켜진다고 인식할 때 구성원들은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회적 자본을 긍정적이며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박희봉, 2009).

(3)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유대를 기반으로 연결된 사회연결망 안에서 개인이나 집단 조직이 속한 행위자들 간의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연계형태를 유지하는 관계구조라 할 수 있다(Adler and Kwon, 2000).

사회적 자본은 개인 및 집단 사이의 연결로 인해 파생되는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속성에 기인한다. 폭넓은 연결망을 가진 개인은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와 기회를 보다 빠르게 획득한다(Burt, 2004). 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알 수 없는 정보를 획득하고 부서 간 다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행위자들은 친구, 직장동료, 멘토, 동호회, 봉사단체, 친목모임 등과 같은 여러 형태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이러한 네트워크의 영향을 받는다(김수한·안리라, 2018).

네트워크는 행위자들과 그들을 묶어주는 관계들의 집합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다기보다 오히려 제도화라는 최초의 행위를 통해 성립된다고 하였다(최종렬, 2004). 이는 네트워크가 의식적, 무의식적 사회관계를 수립하거나 재생산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의 투자(전략의 산물)라고도 하였다(손희성, 2011). 즉 네트워크를 발생시키고 유지하는 데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없다고 하였다(임우석, 2009).

Putnam(2000)은 시민참여의 네트워크가 일반적 호혜성의 규범을 확고하게 증진시키고, 협력과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여 다른 개인 간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 협력을 바탕으로 구체화하며, 미래 협력을 위한 가치적 준거 틀로서 기여한다고 보면서 결속형 네트워크(Bonding Network)와 가교형 네트워크(Bridging Network)로 구분하고 있다. 결속형 네트워크는 배타적 정체성을 갖는 동질적 집단, 즉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사회적 자본 형태인 반면 가교형 네트워크는 광범위한 정체성과 호혜성을 갖는 포용적 사회적 자본 형태로 다양한 수준과 규모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 간에 관한 것이다.

네트워크는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건설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적 교환을 위한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구조를 제고하는 사회적 지자

체라고 하였고(안태숙, 2010), Coleman(1988)은 네트워크에 대한 폐쇄성이 강할수록 구성원 간의 규범과 신뢰가 높아지므로 사회적 자본 축적에 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네트워크의 크기, 범위, 다양성 등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4) 참여

참여는 지역사회 안에서 능동, 수동적으로 결성된 모임이나 구성체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구성원들의 참여 행위로 사회적 자본을 증가, 확대시킨다. 사회단체의 참가를 사회적 자본의 측정요소에 포함시켰으며, 이것은 참여를 통해 신뢰, 상호협력, 네트워크 및 규범 등의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오영은, 2015). 또한 참여는 집단 상황에 대한 지적·정서적 측면에서의 관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네트워크 기능이 활발해지는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원효현·조명임, 2008).

시민의 사회참여는 시민에 의한 정치참여를 뜻하는 것으로 공공의 관심, 수거치, 수요들을 정부와 공공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 참여활동의 유형은 투표참여, 선거운동, 지역공동체 활동 등에 더하여 비관습적 참여로서 청원, 데모, 보이콧 등이 포함된다(김혜정, 2015). 이러한 참여의 유형을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참여로 구분하기도 한다. 사회적 참여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프로그램 및 환경에서의 의사결정에 개인이 참여하는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고, 사회적 참여는 주로 커뮤니티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여러 공식적, 비공식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3. 노후준비

1) 노후준비의 개념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노후준비란 노후에 필요한 자원들을 마련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과 과정이며(박창제, 2008), 노년기에 겪게 되는 빈곤, 건강, 역할상실, 고독의 4중고를 대비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준비하는 것(박현식, 2012)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노후준비란 인생의 마지막 시기인 노년기를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하여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을 사전에 인식하여 이에 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삶의 과정 중 노년기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의미있게 마무리하는 완성기로 생애주기의 중요한 시기이지만 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수입의 감소, 신체능력의 퇴화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가정 내에서의 역할 축소로 인한 자아정체성의 상실과 사회적 활동의 감소 등에 따른 소외감 경험 등 많은 부정적인 변화가 동반되는 시기이기도 하다(배재덕, 2014). 따라서 노후준비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준비를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함으로써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는 적극적 의미의 노후준비라고도 하며, 고령 사회로 변화전상에 있는 한국 사회의 노후준비는 노년기의 상실에 대한 대처를 전반적으로 내포하여 논의되고 있지만 경제적 비중이 크다(최용호·전성남, 2013).

궁극적인 노후준비 개념은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 등 다차원적 차원에서 노년기가 이르기 전에 적극적인 계획과 실천을 위한 준비행위를 의미한다(최혜련, 2012).

노후를 보다 안락하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중년기 시기에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해나가야 하며,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육체적, 심리적 마음의 준비와 더불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전반적·체계적인

계획과 준비자세가 필요하다(정규형, 2013). 최근 중년층 인구의 증가와 조기퇴직의 증가 등으로 노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중년기부터 노후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했다(조추용 외, 2009). 자신의 노년 생활을 미리 준비하고 노년기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처해 나갈 수 있다면 더 적극적인 자세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김수영·이강훈, 2009).

2) 노후준비의 유형

(1) 신체적 준비

현대사회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지금까지 살아 온 시간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노인인 시기로 보내야 한다. 신체적 건강은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노후준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신체적 건강은 그 어떤 요인보다 개인적 삶의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게 해주며,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임경자, 2011; 류성봉, 2013), 신체적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나타낸다(김지년, 2015).

노후에 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보내는 것은 여가생활이나 친교생활을 즐기는 것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 부분이다(김영희, 2015). 그러나 바쁜 일과로 인해 이러한 생활양식들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체중관리에 힘쓰고 성인병에 대한 주의를 위해 지방이나 당분의 섭취를 적게 하고, 규칙적인 생활로 노후의 건강 준비를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는 것이 중년기부터 필요하다고 하였다(강성옥, 2014).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경제적 위치가 낮을수록 신체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김수현, 2009). 사회적 지위가 낮고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도 노후 대비를 위한 신체적 준비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최명화,

2011). 그 이유로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어 건강관리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준비가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경자, 2002). 이렇듯 건강은 노년기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신체적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신경 쓰고 노력하는지와 맞닿아 있다. 그러므로 신체적 쇠퇴가 시작되는 중·장년기 때부터 신체적 건강을 관리하려는 노력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적 관심이 매우 요구된다.

(2) 경제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 준비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규모를 추정해 보고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의 규모를 파악하고, 그 간격을 줄이려는 노력이다(유인순 외, 2012). 또한 노후에 대비하여 경제적 대책을 마련하는 목적은 여유롭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기 위함이다. 노후의 경제력은 노년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노년기를 살아가는데 필수적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매우 필요한 부분이며, 다양한 여가 활동과 사회활동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기 때문이다(강성욱 외, 2013). 이렇듯 노후준비는 대부분 영역에서 경제적인 측면의 준비를 큰 비중으로 두고 있으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다(신근영·고재욱, 2014). 노후의 경제적 요소는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가장 기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경제적 준비는 노년기에 갖추어야 할 경제적 수준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판단을 통해 노후자산 마련과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는 정도로써 노후의 경제적 안정과 보장은 의식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뿐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여가활동과 안락한 노후의 삶을 증진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김주성·최수일, 2010).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 연금과 저축 및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이 노후의 소득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은인영, 2014). 또 자신의 소비지출과 물가상승 등의 요인을 토대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산정하고 이

를 기초로 연금 및 각종 예·적금과 투자형 상품, 부동산 등을 활용하는 체계적인 노후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정영자, 2011).

경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노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경제적인 수입과 만족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노후준비가 미흡할 경우, 경제적 궁핍으로 이어지고, 경제적 궁핍은 의료관리 부족, 부족한 영양섭취, 여가 생활의 불능, 자존감이 하락 등 생활의 다른 영역까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므로 경제적 노후준비가 노후준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장은하, 2014; 박은산, 2015).

(3) 사회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 준비는 가족과 친구들을 중심으로 한 관계적 자원과 다른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취미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우울감을 감소시키며, 소속감과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게 하여 정서적 제어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김백수·이정화, 2010). 중년기의 사회활동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면 노년기에도 활동적인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중년기의 적극적 사회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은 개인 각자의 사회관계망 내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노년기 사회적 노후준비의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김백수 외, 2010; 이소정, 2011). 따라서 노년기 이전부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가짐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친구로부터의 지지와 가족관의 관계 등 대인관계는 노년기 적용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Bennett et al., 1987). 또한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등이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직업외의 여가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신승희, 2010). 최근 인간생활에서 일과 노동의 역할보다 생활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은 여가의 의미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여가란 일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소극적 해석에서 벗어나 일로부터 해방되어 미래의 생산적이 활동을 더욱 증대시키는 생산적 의미를 담고 있다(최혜련, 2012).

중년층의 경우, 이전 세대와 달리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고 서구식 사고방식으로 인한 문화적 필요를 느끼는 세대로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활동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비도 필수적이다(권현정 외, 2008). 같은 맥락에서 여가활동에 대한 조절력을 기르는 것은 중년기 노후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행복한 노년기로 진입할 수 있는 중년기의 과업이다(문현주 외, 2014).

(4) 정서적 준비

현대사회에서 개인적인 자아와 자립을 중요시하면서도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 개인의 사회적 관계의 범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이러 사회적 역할 상실은 노년기의 정서적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지년, 2015). 즉, 노년기에 맞이하게 되는 은퇴와 배우자와의 사별, 친구의 죽음과 자녀의 독립 등에 따른 역할 상실로 인하여 그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인간관계가 축소됨에 따라 공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데(김희정, 2010), 현대 사회의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 단독가구, 노인부부 가구의 증가, 기혼여성들의 취업률 증가에 따른 가정 내 부양자원의 감소는 이러한 노인의 고립감과 소외감을 가중시키고 있다(이정화, 2009).

중년기에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와 긍정적 생활태도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인격완성을 향한 부단한 노력을 한다면, 노년기에 정서적 불안에 빠져 여생을 무의미하게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주예심, 2014).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의지할 수 있는 자녀, 친구, 이웃 등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이나 취미활동, 새로운 지식과 기술습득 등이 전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자기 직업 이외의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임종미, 2012).

사회적 관계망은 노년기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강한 유대감과 신뢰감을 기반으로 짧은 시간에 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통한 친밀감과 믿음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노년기에 이르러 새로운 사회

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만큼 노년기 이전부터 가족, 친구, 동료 등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고 활발히 소통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정서적 노후준비가 될 것이다. 또한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노년기에는 어떤 심리적 변화를 가질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최혜련, 2012).

3. 성공적 노화

1) 성공적 노화의 개념

노화(aging)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생물학적으로 성숙한 인간 모두에게 일어나는 모든 규칙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신체 구조나 기능상의 변화, 인간의 적응이나 행동에서의 변화 유형까지 모두 포함하는 변화를 의미한다(Harris and Cole, 1986). 그리고 외형적, 생리적, 사회적, 심리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인간발달 단계에서 보편적이며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긍정적, 부정적인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Sigelman and Shaffer, 1995).

일반적으로 늙는 것을 ‘노화’ 또는 ‘노화현상’이라고 하며 정상적 노화와 노년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정상적 노화란 발생학적으로 대표적인 유기체가 정상적인 환경조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변화를 말한다. 또한 노년기는 생물학적 측면의 노화를 의미하며, 노화는 전 생애 가운데서 퇴화과정이 재생적인 생물학적 과정을 능가하여 결국 유기체의 파괴가 일어나는 시기를 일컫는다(하정연, 2003).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은 1986년 미국 노인학회의 연례회의 기초 주제로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Fisher, 1995). 이후 연구의 시각이 부정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방향을 전환되어 노인의 다양성을 수용하여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 하에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성혜영·유정현, 2002).

Row 와 Kahn이 1984년 미국 맥아더 연구재단(MacArther Studies of Aging)에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 후 결과물을 발표하고, 1987년 ‘Human aging’을 Science지에 게재하면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크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김미혜·신경림, 2005).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소개된 이후 많은 학자들이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연구

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합의된 개념이 없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Depp and Jeste, 2006). 성공적 노화 개념에 관한 연구 초기에는 주로 생물학적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었지만 이후 연구에서는 생물학적인 측면만이 아닌 사회·심리적 측면까지 다차원적으로 모두 다루어지고 있다(Cosco et al., 2014). 생물학적 측면은 주로 건강을 다루며 신체적 활동이나 일상생활의 활동 능력 같은 신체적 기능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는 반면,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는 활동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김동배, 2008). 노년기 활동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으로 노년기의 생활만족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높아지므로 지속적인 사회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홍현방, 2001; 김동배, 2008).

활동이론에 근거한 대표적인 성공적 노화이론은 Row 와 Kahn의 적극적 인생 참여 모델로 질병과 장애를 피해가는 것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인지적·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 활기찬 인간관계 및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위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질병과 장애가 없으면 인지적·신체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삶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삶의 참여가 성공적 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Row and Kahn, 1997). 그러나 이 이론은 지나치게 기능과 생산성을 강조하여 노화로 인한 질병과 장애의 위험과 성공적 노화의 주관적인 면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Strawbridge et al., 2002; 이창수 외, 2013). 또한, 활동과 사회참여를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노인 고유의 특성을 인정하기 않고 젊은이와 같아지기를 바라는 바람으로써 노화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성혜영·유정현, 2002).

반면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적 관점과는 다르게 정서적·인지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조영주, 2012). 대표적으로 Ryff(1989)의 통합모델과 Baltes와 Baltes(1990)의 선택·최적화·보상 모델이 있다. 통합모델을 연구한 Ryff(1989)의 성공적 노화는 자아와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자기수용(self-acceptance), 타인과 신뢰할 수 있는 대인관계를 가지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자기결정과 독립적 자율성, 환경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숙달, 인생의 목표와

방향감, 자아가 계속 발달한다는 개인성장의 차원 등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임상, 발달, 정신건강에 기초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되었지만(김동배, 2008) 지나치게 심리적 차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성공적 노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홍현방, 2001).

노년학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유럽의 대표적인 학자들인 Baltes and Baltes (1990)의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적정화 모델(A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SOC모델)은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상실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능력에 적합한 행동을 선택하고, 보유한 기술을 적정화하여, 노화로 인해 상실한 것을 최대한 보상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노화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OC모델은 개인별 다양성과 유연성을 핵심개념으로 제시하였으며, 전 생애 발달심리학의 관점에서 성공적 노화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성공적 노화자신에게 중요한 활동목표를 선택하고, 활동목표와 관련된 기술을 적정화하고, 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상한다는 이론으로써 성공적 노화를 위한 역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희, 2012).

Crowther et al.(2002)은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로 질병과 장애요인으로부터 피하기, 신체적, 인지적 기능과 적극적 사회활동, 그리고 긍정적인 영성을 제시하였다. Glass(2003)는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기능 유지, 삶의 질 및 질병이 없는 상태 등과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였다. Elizabeth 등(2004)은 성공적 노화를 신체적, 기능적, 심리 및 사회적 건강을 압축한 다차원적 결합체라고 주장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 1998)는 성공적 노화를 좋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으로 정의한 바 있다(김정희, 2012).

우리나라에서 성공적 노화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홍현방(2001)은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수용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며 동시에 삶의 의미나 목적을 잃지 않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심리적인 발달과정이며, 동시에 정신이나 신체상의 질병의 없어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김미혜와 신경림(2005)은 성공적 노화에 관한 측정도구 개발 연구를 통해 성공적 노화는 자기효

능감을 추구하고, 자녀의 성공을 기대하며, 배우자와의 동반자적인 삶과 자기통제를 잘하는 것을 성공적 노화로 말하고 있다. 김동배(2008)는 한국문화 속에서의 성공적 노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자율적이고 자기완성 지향적이며 적극적 삶의 참여 및 자신과 타인에 대한 수용을 노화의 구성요소를 언급하면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남기민과 이정은(2012)은 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의 최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심리적 안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성공적 노화로 정의했다.

백지은과 최혜경(2005)은 경제적 노후준비로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며, 안락한 생활과 존경받는 삶, 자녀의 성공을 통한 삶, 욕심을 버리는 삶을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언급하면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여성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연구한 전은희(2011)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높은 수준의 인지 능력을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가족 및 주변 사람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주고 받으며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성공적 노화를 설명한다. 전보영(2012)은 성공적 노화란 인간의 발달과정으로서의 신체적·심리적 변화와 사회적 관계 변화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느끼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노후생활을 보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노인학습자의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연구한 김예슬(2018)의 논문에서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건강하고 활력 있게 늙어가는 과정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이 성공적 노화를 정의하는 것은 학자마다 어떠한 이론적 관점을 통해 보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성공적 노화를 단일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성공적 노화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응해 가는 인간 발달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공적 노화는 인간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과 심리적 발달, 사회적 관계, 개인을 둘러싼 생태환경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를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여 친밀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김동배(2008)가 개발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척도로 자율적인 삶, 자기완성 지향의 삶을 통해 자아실현을 성취하며, 자기수용,

타인수용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성공적 노화의 구성 요소

성공적 노화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성공적 노화의 개념처럼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국내·외의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자기수용, 자기통제와 같은 심리적·인지적 기능,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생산적인 활동, 경제적인 준비 등이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김미혜·신경림, 2005; 김태호 2015).

미국의 MacArther재단(MacArther Foundation)은 1980년대 중반부터 노화의 긍정적 요소를 찾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 즉, 생물학, 신경심리학, 신경과학, 생리학, 심리학, 신경학, 현상학, 사회학, 노인과학 등의 연구를 지원하여 성공적 노화에 대한 다차원적 구성 개념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연구로 Rowe and Kahn(199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를 낮은 질병률, 질병으로 인한 장애로부터의 회피, 높은 수준의 신체적 기능과 정신적 기능의 유지, 적극적 인생 참여라고 하였다(김태호, 2015).

외국의 동향을 보면, 초기에는 신체적 건강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다가 점차 정신적, 심리적 특성으로 이어졌으며, 사회적 관계 및 경제 활동 등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관심이 바뀌고 있다(강신옥, 2009).

Fisher(1995)는 성공적 노화의 주요 구성요인으로 개인적 목표, 자기수용, 성취감, 자율성 등으로 보고 있다. Baltes and Baltes(1990)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 요소로 장수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과 인지적 기능 유지, 사회적 유능성, 자기통제, 생활만족 등의 일곱 가지를 제시하였다.

Crowther et al.(2002)는 Rowe and Kahn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 추가로 긍정적인 영성(positive spirituality)을 추가하여 성공적 노화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Ryff(1989)는 성공적 노화 요소를 자기 수용,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자율성, 기회의 효율적 이용, 인생 목표, 개인적 성장 등으로 제시하였다.

Wong(1989)는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강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가지는 것을 성공적 노화로 보았다.

성공적 노화와 관련하여 주관적 건강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히 객관적인 건강상태 보다는 노인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욱 더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박경란·이영숙, 2002; 정여진, 2011; 이묘숙, 2012; 이민주, 2013).

한국적 특성의 성공적 노화에는 서구와 달리 전통적인 가치관인 부모로서의 역할이나 자녀와의 관계 등 가족주의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미혜·신경림, 2005; 백지은, 2006; 이민주, 2013). 또한 노년기 가족의 지지는 노인의 신체능력 쇠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배우자와의 사별, 직장에서의 퇴직 등으로 사회적 지위의 상실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가족의 지지는 성공적 노화를 위해 더욱 더 중요시된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삶의 활력 유지, 가족의 지지, 대인관계 유지와 문제해결능력, 긍정적 영성 등이 성공적 노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노년기 특성상 신체적, 정신적 상실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생활기간이 장기화됨을 고려할 때 가족의 지지는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가져와 노년기의 삶의 질적 수준 향상을 가져옴으로써 성공적 노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국내연구자들의 연구에서 밝혀진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노화를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정리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는 <표 3> 과 같다.

<표 3> 국내연구자들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 요소

연구자	성공적 노화의 구성 요소
홍현방(2001)	심리적 발달: 자아개념, 자아 통제, 자아통합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접촉, 가족과의 접촉 신체적인 건강 : 질병유무, 기능 정도, 주관적인 평가 정신적인 건강: 질병 유무, 기능 정도

김은숙·김귀분 (2002)	대접받는 삶, 행복한 삶, 평온한 삶, 독립적인 삶, 경제적 자립, 만족한 삶, 의지하고 싶은 마음, 봉사하는 삶, 가문
강미선·강인 (2004)	부부, 자녀, 친구, 재산, 여가, 건강, 거처, 마음의 복
백지은·최혜경 (2005)	일상의 순조로움, 자기관리, 사회적 자원의 확보
홍승우(2001)	건강, 가족 결속, 사회활동 및 사회관계, 삶에 대한 수용 정도, 죽음에 대한 수용 정도
성혜영·유정현 (2002)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적용, 정신적·신체적 기능유지, 삶의 만족, 복지혜택 및 편안함, 경제적 준비, 질병 예방, 가족 간의 관계
박경란·이영숙 (2002)	자율, 개인성장, 안락한 생활, 역할 완수, 자아수용, 상호 교류, 봉사
김미혜·신경림 (2005)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을 느끼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자기통제를 잘 하는 삶
김동배(2008)	자율적인 삶, 자기완성 지향, 적극적 인생참여,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수용, 타인수용

출처 : 조은혜 (2017)

Ⅲ.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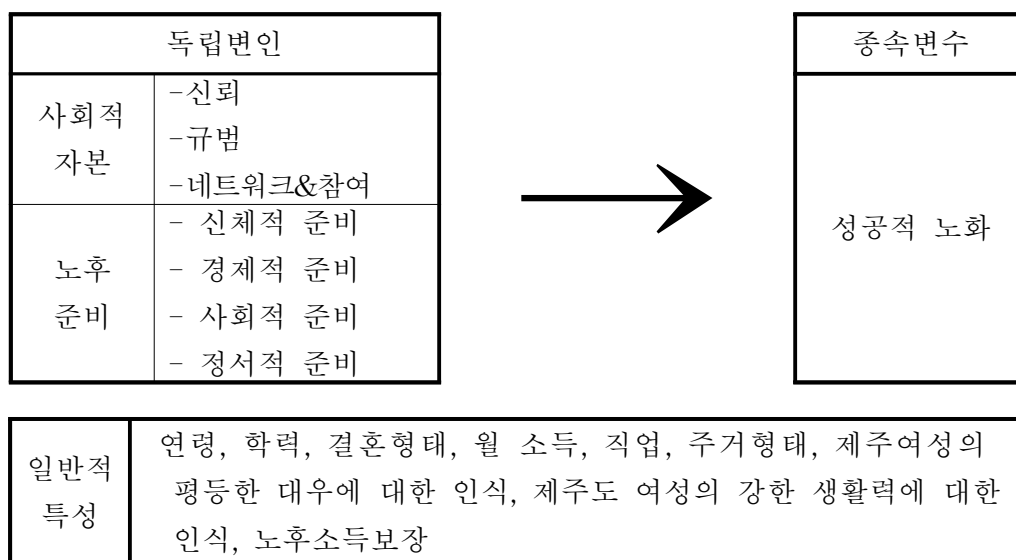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제주지역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노화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제주지역 여성 중 제주도 거주 중년기혼여성(40대~50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는 2020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배부된 설문지 총 300부 중 회수된 설문지는 282부였고,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22부를 제외하고 26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 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가설

연구문제 1.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노후준비, 성공적 노화의 수준은 어떠한가?

가설 1-1.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노화준비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성공적 노화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사회적 자본은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신뢰 수준은 성공적 노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규범 준수 수준은 성공적 노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네트워크& 참여 수준은 성공적 노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노후준비는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3-1.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신체적 노후준비는 성공적 노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는 성공적 노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사회적 노후준비는 성공적 노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정서적 노후준비는 성공적 노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측정도구

1) 측정도구

(1) 사회적 자본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로서 사회적 자본에 관한 질문은 Putnam(1993)과 Cloeman(1988)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임우석(2009)과 임중철(2013) 그리고 김태호(2015)와 최승인(2016)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만든 신근영(2016)의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수준, 준법정신 수준, 네트워크와 참여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노후준비

독립변수인 중년기 노후준비가 노년기에 필요한 자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노년기 변화와 문제를 기초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노후준비를 측정하기 위해 가복만(2014)의 동아시아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척도를 재구성한 박윤희(2017)의 설문지에서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3) 성공적 노화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를 측정하기 위해 김동배(2008)가 개발한 성공적 노화요인과 서은경(2011)의 성공적 노화요인 연구척도, 그리고 이승화(2006)의 연구척도를 사용한 김태호(2014)의 29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측정도구 신뢰도

변인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선행연구	본연구
노후준비도	신체적 노후준비	1-5	5	.751	.689
	경제적 노후준비	6-10	5	.845	.789
	사회적 노후준비	11-15	5	.800	.717
	정서적 노후준비	16-20	5	.839	.805
사회적 자본	신뢰	21-23	3	.847	.760
	규범	24-26	3	.719	.707
	네트워크&참여	27-31	5	.802	.808
성공적인 노화		32-60	29	.94	.926

2) 신뢰도 분석 결과

설문지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내적일관성의 산출계수인 Cronbach's α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는 측정도구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계수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일반적으로 0-1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한다. 사회과학에서는 보편적으로 0.8-0.9의 값을 가지면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0.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분석 결과는 위의 <표 4>와 같이 각 변수의 측정항목 간의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노후준비도의 측정변인인 경우, 신체적 노후준비는 .689, 경제적 노후준비는 .789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정서적 노후준비는 각각 .717과 .805로 조사되어 전체 신뢰도는 .81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의 측정변인인 경우 신뢰는 .760, 규범은 .707, 네트워크&참여는 .808로 전체 신뢰도는 .715 나타나 사회적 자본의 측정변인들이 내적 일관성이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성공적 노화는 Cronbach's α 계수 .926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의 각 문항을 점수화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변수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노후준

비, 성공적 노화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자본, 노후준비, 성공적 노화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하였고,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과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조사한 연구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40대(40~49세)가 116명(44.6%), 50대(50~59세)는 144명(55.4%)이고,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93명(31.9%), 전문대졸 89명(29.3%), 대학교 졸업이상이 118명(38.8%)이었다.

현재 결혼 형태는 기혼 231명(88.8%)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 23명(8.9%), 별거 및 사별이 각 2명(0.8%), 4명(1.5%)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소득은 200만원 미만 32명(12.3%), 200~300만원 미만 68명(26.2%), 300~500만원 미만 101명(38.8%), 500만원 미만~700만원 미만 34명(13.1%), 700만원 이상 25명(9.6%)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주부가 60명(23.1%), 농·어업 6명(2.3%), 자영업 19명(7.3%), 전문직 61명(23.5%), 사무직 58명(22.3%), 기타직종 56명(21.5%)으로 분포되어 있다.

주거형태는 자가 195명(75.0%), 전세 20명(7.7%), 월세(년세포함) 24명(9.2%), 무상거주 14명(5.4%), 기타 7명(2.7%)으로 조사되었다.

제주지역 여성이 사회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9명(3.3%), ‘그렇지 않다’ 67명(25.8%), ‘보통이다’ 135명(51.8%), ‘그렇다’ 48명(18.5%), ‘매우 그렇다’ 1명(0.4%)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설화, 제주해녀 등을 통해 나타나는 제주도 여성의 강한 생활력에 대한 인식에는 ‘매우 부정적’ 2명(0.8%), ‘부정적’ 11명(4.2%), ‘보통’ 68명(26.2%), ‘긍정적’ 144명(55.3%), ‘매우 긍정적’ 35명(13.5%)이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이 라고 답한 연구대상자가 95명(36.5%), 사적연금 34명(13.1%), 저축이나 적금 63명(24.2%), 부동산 등 재테크 55명(21.2%), 주식 또는 펀드 4명(1.5%), 기타가 9명(3.5%)로 조사되었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유효퍼센트(%)
연령대	40대(40~49세)	116	44.6
	50대(50~59세)	144	55.4
	계	260	100.0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이하	93	35.8
	전문대학 졸업	78	30.0
	대학교 졸업	74	28.4
	대학원 이상	15	5.8
	계	260	100
결혼상태	기혼	231	88.8
	별거	2	.8
	이혼	23	8.9
	사별	4	1.5
	계	260	100
가정월수입	200만원 미만	32	12.3
	200~300만원 미만	68	26.2
	300~500만원 미만	101	38.8
	500~700만원 미만	34	13.1
	700만원 이상	25	9.6
	계	260	100
직업	주부	60	23.1
	농·어업	6	2.3
	자영업	19	7.3
	전문직	61	23.5
	사무직	58	22.3
	기타	56	21.5
	계	260	100

주거형태	자가	195	75.0
	전세	20	7.7
	월세(년세포함)	24	9.2
	무상	14	5.4
	기타	7	2.7
	계	260	100
평등대우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9	3.5
	그렇지 않다	67	25.8
	보통이다	135	51.8
	그렇다	48	18.5
	매우 그렇다	1	.4
	계	260	100
강한 생활력 인식	매우 부정적이다	2	.8
	부정적이다	11	4.2
	보통이다	68	26.2
	긍정적이다	144	55.3
	매우 긍정적이다	35	13.5
	계	260	100
노후소득 보장	공적연금	95	36.5
	사적연금	34	13.1
	저축이나 적금	63	24.2
	부동산 등 채테크	55	21.2
	주식 또는 펀드	4	1.5
	기타	9	3.5
	계	260	100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변인은 사회적 자본, 노후준비, 성공적 노화였으며, 각 변인들의 분포는 <표 6> 과 같다. 5점 척도로 구성된 측정값은 노후준비의 전체 평균은 3.25(SD=.54)로 ‘보통이다(3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요인 중에는 정서적 노후준비가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노후준비는 2.84로 ‘부정적이다(2점)’와 ‘보통이다(3점)’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노후준비 3.13(SD=.74), 사회적 노후준비 2.84(SD=.71)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의 평균은 3.49(SD=.47)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으로 규범 3.76(SD=.58), 신뢰3.59(SD=.54), 참여와 네트워크 3.27(SD=.70) 순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성공적 노화의 전체평균이 3.76(SD=.42)로 긍정적인 대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6>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N=260

변인	하위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1.00	5.00	3.51	.60
	경제적 노후준비	1.00	5.00	3.13	.74
	사회적 노후준비	1.00	5.00	2.84	.71
	정서적 노후준비	1.20	5.00	3.52	.64
	전체	1.05	4.90	3.25	.54
사회적 자본	신뢰	1.67	5.00	3.59	.54
	규범	2.33	5.00	3.76	.58
	네트워크&참여	1.60	5.00	3.26	.62
	전체	2.00	5.00	3.49	.47
성공적인 노화	전체	2.69	4.97	3.76	.42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노후준비, 성공적 노화의 차이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t-test, 일원변량분석(ANOVA)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표 7>과 같다.

연령($t=-4.632$, $p=.025$) 과 월소득($F=4.004$, $p=.008$)이 사회적 자본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0에서 58세에 해당하는 50대의 연령이 평균 3.61(SD.506)로 40에서 49세에 해당하는 40대 연령 평균 3.34(SD.385)보다 사회적 자본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월소득은 2백만원 이상에서 3백만원 미만 ($M=3.55$, $SD.454$)사이에서 응답한 경우가 2백만원 미만($M=3.23$, $SD.535$)비해 사회적 자본이 유의하게 높았다. 학력($F=1.386$, $p=.252$), 직업($t=1.071$, $p=.730$), 주거형태($t=2.051$, $p=.429$), 노후의 소득보장($F=636$ $p=.529$)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변수	범주	N	사회적 자본		
			M(SD)	T/F 값	P
연령	40대(40-49)	116	3.34(.385)	-4.632*	.025
	50대(50-58)	144	3.61(.506)		
학력	고졸이하	93	3.44(.514)	1.386	.252
	전문대졸	78	3.47(.396)		
	대학교졸 이상	89	3.56(.490)		
월소득	2백만원 미만	32	3.23(.535)	4.004**	.008
	2백만원이상~ 3백만원 미만	68	3.55(.454)		
	3백만원이상~ 5백만원 미만	101	3.52(.438)		
	5백만원 이상	59	3.51(.484)		

직업	무(주부)	60	3.55(.480)	1.071	.730
	유(경제활동)	200	3.47(.472)		
주거형태	자가	195	3.52(.485)	2,051	.429
	자가 외 (전세, 월세 등)	65	3.39(.425)		
노후소득 보장	공적연금	95	3.463(.482)	.636	.529
	사적연금	34	3.57(.376)		
	저축이나 적금	63	3.46(.501)		
	부동산, 펀드 등 재테크	68	3.52(.483)		

*p<.05, **p<.01, ***p<.001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하위변인의 차이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인 중 신뢰와 관련하여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월소득($F=4.260, p=.006$)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월소득 5백만원 이상이 평균 3.711, ($SD=.585$), 3백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미만이 평균 3.613($SD=.585$), 2백만원에서 3백만원 미만이 평균 3.612($SD=.480$), 2백만원 미만이 평균이 3,302(.646)순으로 월소득이 높을수록 신뢰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t=-1.767, p=.185$), 학력($F=3.083, p=.048$), 직업($t=.585, p=.711$), 주거형태($t=1.459, p=.322$), 노후소득보장($F=2.035, p=.109$)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규모에서는 학력($t=5.623, p=.004$)과 월소득($F=5.017, p=.00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교졸업 이상이 평균 3.928($SD=.560$), 전문대졸이 3.709($SD=.556$), 고졸이하 평균이 3.655($SD=.606$)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월소득은 2백만원에서 3백만원 미만이 평균 3.857($SD=.525$), 3백만원에서 5백만원 미만이 평균 3.851($SD=.589$), 5백만원 이상이 3.683($SD=.598$), 2백만원 미만이 평균 3.447($SD=.571$)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t=-3.350, p=.285$), 직업($t=1.275, p=.486$), 주거형태($t=.752, p=.745$), 노후소득보장($F=1.004, p=.392$)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네트워크 & 참여에서는 연령($t=-3.350$, $p=.285$), 학력($t=.362$, $p=.696$), 월소득 ($F=1.694$, $p=.169$), 직업($t=.776$, $p=.367$), 주거형태($t=1.694$, $p=.169$), 노후소득보장 ($F=.261$, $p=.853$)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하위변인의 차이

변수	범주	N	신뢰			규범			네트워크 & 참여		
			M(SD)	T/F 값	P	M(SD)	T/F 값	P	M(SD)	T/F 값	P
연령	40대(40-49)	116	3.53(.531)			3.63(.547)			3.067(.541)		
	50대(50-58)	144	3.65(.545)	-1.767	.185	3.87(.596)	-3.350	.285	3.431(.625)	-4.961	.511
학력	고졸이하	93	3.487(.570)			3.655(.606)			3.303(.654)		
	전문대졸	78	3.645(.444)	3.083	.048	3.709(.556)	5.623**	.004	3.223(.537)	.362	.696
	대학교졸 이상	89	3.670(.574)			3.928(.560)			3.274(.641)		
월소득	2백만원 미만	32	3,302(.646)			3.447(.571)			3.056(.630)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68	3.612(.480)			3.857(.525)			3.344(.634)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101	3.613(.489)	4.260**	.006	3.851(.589)	5.017**	.002	3.265(.590)	1.694	.169
	5백만원 이상	59	3.711(.585)			3.683(.598)			3.305(.616)		
	무(주부)	60	3.633(.615)			3.850(.618)			3.323(.540)		
직업	유(경제활동)	200	3.586(.517)	.585	.711	3.740(.576)	1.275	.486	3.253(.636)	.776	.367
	자가	195	3.625(.537)			3.781(.587)			3.319(.637)		
주거 형태	자가 외	65	3.512(.546)	1.459	.322	3.717(.586)	.752	.745	3.120(.519)	.2275	.232
	공적연금	95	3.589(.482)			3.712(.612)			3.237(.608)		
노후 소득 보장	사적연금	34	3.803(.472)			3.862(.519)			3.258(.533)		
	저축이나 적금	63	3.539(.611)	2.035	.109	3.719(.587)	1.004	.392	3.263(.650)	.261	.853
	부동산,펀드 등 재테크	68	3.558(.568)			3.833(.580)			3.323(.639)		

*p<.05, **p<.01, ***p<.001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의 차이는 <표 9> 와 같다. 대상자의 월소득(F=3.358, p=.019)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월소득 5백만원 이상이 평균 3.324(SD.543), 3백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미만은 평균 3.294(SD.533), 2백만원에서 3백만원 미만은 평균 3.254(SD.514), 2백만원 미만 평균이 2,976(.589)순으로 월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준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t=-4.487, p=.478), 학력(F=2.516, p=.083), 직업(t=.325, p=.591), 주거형태(t=2.986, p=.672), 노후소득보장(F=1.311, p=.271)은 노후준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의 차이

변수	범주	N	노후준비		
			M(SD)	T/F 값	P
연령	40대(40-49)	116	3.088(.551)	-4.487	.478
	50대(50-58)	144	3.383(.504)		
학력	고졸이하	93	3.189(.519)	2.516	.083
	전문대졸	78	3.207(.552)		
	대학교졸 이상	89	3.355(.556)		
월소득	2백만원 미만	32	2.976(.589)	3.359*	.019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68	3.254(.514)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101	3.294(.533)		
	5백만원 이상	59	3.324(.543)		
직업	주부(무)	60	3.271(.541)	.325	.591
	유(경제활동)	200	3.245(.547)		
주거형태	자가	195	3.309(.527)	2.986	.672
	자가 외	65	3.079(.565)		

	공적연금	95	3.210(.538)		
	사적연금	34	3.217(.582)		
노후소득 보장	저축이나 적금	63	3.210(.498)	.1311	.271
	부동산, 펀드 등 재테크	68	3.363(.573)		

*p<.05, **p<.01, ***p<.001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의 하위 변인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의 하위 변인의 차이는 <표 10> 과 같다. 경제적 노후준비에 있어서 연령($t=-1.817$, $p=.027$), 학력($F=6.211$, $p=.002$), 월소득($F=9.017$, $p=.000$)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50세에서 59세의 50대 연령대($M=3.208$, $SD=.680$)가 40세에서 49세의 40대 연령대($M=3.036$, $SD=.817$)보다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과 관련해서는 고졸이하($M=2,952$, $SD=.717$), 전문대졸($M=3,112$, $SD=.747$), 대학교졸업 이상($M=3,334$, $SD=.737$)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준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월소득과 관련하여 월소득 5백만원 이상($M=3,131$, $SD=.747$), 3백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미만($M=3,204$, $SD=.693$), 2백만원에서 3백만원 미만($M=3,020$, $SD=.720$), 2백만원 미만($M=2,631$, $SD=.894$)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월소득이 높다고 노후점수가 높지는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 ($t=-1.677$, $p=.347$), 주거형태($t=3.717$, $p=.112$), 노후소득보장($F=2.223$, $p=.086$)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신체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정서적 노후준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의 하위 변인의 차이

변수	범주	N	신체			경제			사회			정서		
			M(SD)	T/F 값	P	M(SD)	T/F 값	P	M(SD)	T/F 값	P	M(SD)	T/F 값	P
나이	40대(40-49)	116	3.374(.618)	-3.421	.733	3.036(.817)	-1.817*	.027	2.570(.649)	-5.805	.506	3.372(.688)	-3.377	.258
	50대(50-58)	144	3.627(.573)			3.208(.680)			3.056(.688)			3.638(.583)		
학력	고졸이하	93	3.505(.6223)	.814	.444	2.952(.717)	6.211**	.002	2.815(.651)	.634	.532	3.483(.606)	1.178	.310
	전문대졸	78	3.456(.588)			3.112(.747)			2.792(.707)			3.466(.654)		
	대학교졸 이상	89	3.575(.605)			3.334(.737)			2.907(.778)			3.604(.674)		
월 소득	2백만원 미만	32	3.350(.601)	1.397	.244	2.631(.894)	9.015***	.000	2.581(.742)	1.914	.128	3.343(.573)	.954	.415
	2백만원 이상~	68	3.611(.545)			3.020(.720)			2.864(.716)			3.520(.595)		
	3백만원 미만	101	3.499(.587)			3.204(.693)			2.920(.684)			3.552(.684)		
	3백만원 이상~					3.204(.693)			2.920(.684)			3.552(.684)		
	5백만원 미만	59	3.514(.695)			3.131(.747)			2.813(.723)			3.559(.666)		
직업	무(주부)	60	3.613(.621)	1.441	.904	2.990(.801)	-1.677	.347	2.956(.691)	1.449	.258	3.526(.579)	.091	.531
	유(경제활동)	200	3.485(.600)			3.174(.727)			2.805(.716)			3.518(.664)		
주거 형태	자가	195	3.567(.583)	2.444	.704	3.228(.691)	3.717	.112	2.913(.726)	2.937	.480	3.526(.618)	.266	.431
	자가 외	65	3.356(.650)			2.840(.837)			2.618(.624)			3.501(.723)		
노후 소득 보장	공적연금	95	3.543(.585)	.967	.409	3.029(.725)	2.223	.086	2.871(.736)	1.203	.309	3.397(.608)	1.862	.137
	사적연금	34	3.423(.773)			3.182(.729)			2.694(.603)			3.570(.698)		
	저축이나	63	3.441(.540)			3.060(.662)			2.765(.708)			3.574(.6111)		
	적금					3.060(.662)			2.765(.708)			3.574(.6111)		
	부동산, 펀드 등 재테크	68	3.588(.600)			3.314(.836)			2.938(.728)			3.614(.684)		

*p<.05, **p<.01, ***p<.001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는 <표 11> 와 같다. 성공적 노화의 차이는 학력(F=5.339, p=.005)과 월소득(F=4.547, p=.004)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력이 높고 월소득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t=-2.592 p=.613), 직업(t=.325, p=.591), 주거형태(t=.719, p=.941), 노후소득보장(F=.759, p=.518)은 성공적 노화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

변수	범주	N	성공적 노화		
			M(SD)	T/F 값	P
연령	40대(40-49)	116	3.687(.435)	-2.592	.613
	50대(50-58)	144	3.383(.504)		
학력	고졸이하	93	3.696(.435)	5.339**	.005
	전문대졸	78	3.709(.420)		
	대학교졸 이상	89	3.881(.406)		
월소득	2백만원 미만	32	3.521(.487)	4.547**	.004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68	3.744(.409)		
	3백만원이상~ 5백만원 미만	101	3.818(.409)		
	5백만원 이상	59	3.821(.428)		
직업	주부(무)	60	3.271(.541)	.325	.591
	유(경제활동)	200	3.245(.547)		
주거형태	자가	60	3.798(.442)	.719	.941
	자가 외	200	3.752(.424)		
노후소득 보장	공적연금	95	3.733(.407)	.759	.518
	사적연금	34	3.773(.369)		
	저축이나 적금	63	3.734(.419)		
	부동산,펀드 등 채테크	68	3.827(.488)		

*p<.05, **p<.01, ***p<.001

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연구모형에 있는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표 12〉과 같다.

먼저 일반적 특성 중 결혼형태, 직업, 평등대우에 대한 인식, 노후소득보장은 노후준비의 하위요인 변수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사회적 자본에서 하위요인에서는 결혼형태, 직업, 노후소득보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은 노후준비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노후준비($r=.250, p<.01$), 사회적 노후준비($r=.381, p<.01$), 정서적 노후준비($r=.175, p<.01$)와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규범($r=.135, p<.05$)과 네트워크&참여($r=.279, p<.05$)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제주도 여성의 강한 생활력에 대한 인식은 노후준비, 사회적 자본, 성공적 노화 전체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노후준비의 하위요인 신체, 경제, 사회, 정서적 노후준비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 & 참여 관계에서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성공적 노화는 노후준비와 사회적 자본 전체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12〉 측정변인의 상관계수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연령	1																	
2.학력	-.264**	1																
3.결혼형태	-.018	-0.40	1															
4.월소득	-.213**	.237**	-.248**	1														
5.직업	-.062	.011	.087	.111	1													
6.주거형태	-.121	-.023	.300**	-.208**	.110	1												
7.평등대우	.030	-.014	-.052	-.007	.043	-.022	1											
8. 강한 생활력	.070	.068	.031	.044	.084	-.052	.138*	1										
9.노후소득 보장	.174**	.074	.154*	.017	-.048	.059	-.073	-.013	1									
10.신체	.250**	.073	-.003	.047	-.067	-.058	-.003	.195**	.012	1								
노 후	11.경제	.110	.225**	-.044	.288**	.021	-.230**	.094	.211**	.073	.514**	1						
준 비	12.사회	.381**	.060	.005	.074	-.093	-.147	.121	.222***	.000	.533**	.550**	1					
사	13.정서	.175**	.090	.057	.087	-.021	-.016	.090	.229**	.102	.487**	.532**	.544**	1				
회	14.신뢰	.122	.143*	-.048	.194**	-.040	-.065	.227**	.176**	-.075	.353**	.385**	.392**	.426**	1			
적	15.규범	.135*	.196**	-.009	.034	-.060	-.029	.073	.190**	.034	.461**	.352**	.411**	.527**	.495**	1		
자	16.네트워크 & 참여	.279**	.003	.051	.099	-.103	-.136*	.109	.194**	.032	.382**	.480**	.624**	.489**	.418**	.461**	1	
본	17.성공적 노화	.117	.200**	-.062	.183**	-.025	-.085	.030	.212**	.040	.549**	.557**	.521**	.701**	.505**	.656**	.552**	1

*p<.05, **p<.01, ***p<.001

5. 사회적 자본과 노후준비의 하위요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하위변인인 신체, 경제, 사회, 정서적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3> 과 같다. 분석결과 사회적 자본과 노후준비의 하위변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82.6%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F=32.545$, $p=.000$)를 나타냈다. 사회적 자본 중에서는 규범($\beta=276$, $p=.000$)과 네트워크&참여($\beta=156$, $p=.003$)가, 노후준비 중 신체적($\beta=122$, $p=.011$), 정서적($\beta=355$, $p=.000$)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사회적 자본과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모형		B	SE	β	t	p
(상수)		1.075	.160		6.722***	.000
연령 ¹⁾		.033	.036	.038	.912	.363
학력		.026	.018	.056	1.407	.161
결혼형태 ²⁾ (결혼유지/그외)		.098	.054	.072	1.807	.072
월소득		.016	.016	.043	1.012	.312
직업 ³⁾ (유/무)		.018	.038	.017	.458	.647
주거형태 ⁴⁾ (자가/그외)		-.009	.039	-.009	-.236	.814
평등 대우		-.036	.021	-.063	-1.667	.097
강한 생활력		.001	.021	.002	.052	.958
노후소득보장		-.005	.012	-.018	-.467	.641
사 회 적 자 본	신뢰	.058	.036	.074	1.607	.109
	규범	.202	.036	.276	5.635***	.000
	네트워크 &참여	.108	.036	.156	3.048**	.003
노 후 준 비	신체적	.086	.034	.122	2.526*	.011
	경제적	.058	.030	.101	1.915	.057
	사회적	-.012	.033	-0.20	-.365	.716
	정서적	.236	.034	.355	6.956***	.000
R ² =.826		adjusted R ² =.661		F=32.545***	P=.000	Durbin-Watson=2.217

*p<.05, **p<.01, ***p<.001

1)더미연령: 40대=0, 50대=1, 2)더미결혼형태: 0=결혼 유지 1=그 외 3)더미직업유무: 0=주부, 1=주부 외, 4)더미주거형태: 0=자가, 1=자가 외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 중년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노후준비의 수준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거주하는 40세에서 59세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중년여성이 느끼는 사회적 자본에서 신뢰, 규범, 네트워크&참여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노후준비도를 경제적 측면, 신체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정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준비의 수준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40세에서 49세인 40대가 116명(44.6%)이었고 50세에서 58세까지의 50대에 속하는 대상자가 144명(55.4%)로 나타났다. 기혼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까지 결혼을 유지하는 대상자가 231명으로 88.8%였다. 나머지는 이혼, 별거, 사별로 응답하였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60명(23.1%)로 그 외 200명은 어떤 형태로든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직업을 갖고 있었다. 주거형태는 자가 195명인 75%로 절반이상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제주지역 여성이 사회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보통’ 135명(51.8%), ‘그렇다’ 144명(55.3%)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설화, 제주 해녀 등을 통해 나타나는 제주도 여성의 강한 생활력에 대한 인식에는 ‘보통’ 68명(26.2%), ‘긍정적’ 144명(55.3%), ‘매우 긍정적이다’ 35명(13.5%)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노후소득보장으로는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95명(36.5%)로 가장 많았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살펴보면 월소득이 높

을수록 신뢰수준이 높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규범 준수 수준이 높았고, 월소득에 따라 규범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는 40대 보다는 50대가 다가오는 노후준비 중 경제적 준비에 더 신경 쓰고 있었고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았다. 또한, 월 소득도 높을수록 대체로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은 학력과 월 소득이 높을수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과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 중 규범과 네트워크&참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었다.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규범준수와 네트워크&참여가 강할수록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록 연구대상자는 다르지만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사회적 자본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수준이 높아진다는 김태호(2014)의 연구와 박물대학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사회적 자본 및 생활만족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신영· 어용숙, 2018)에서도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가 높게 나타난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하였다. 또한, 시니어로빅 참여자가 프로그램을 참여를 통해서 무형가치인 사회적 자본을 축적 및 형성하여 일상생활의 삶의 의미와 사회적 관계를 왕성하게 함으로서 성공적 노화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심성섭·윤상선, 2014) 등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증가할수록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노후준비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교육수준과 월소득이 대체로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하지만 신체적, 정서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체적으로 건강할수록 노후준비 수준이 높아 중년여성들이 건강관리가 노후생활 준비에도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중년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가생활을 통해 정서적으로 풍부한 노후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경제적 노후준비 또한 필요한 요소이다.

노화가 어떻게 경험되는가는 노년생활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의 노인세대인 중년층들에게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록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접근과 노후 생활에 대해 젊은 시기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스스로 미래를 촘촘히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에서 제주여성들은 제주도 설화나 제주 해녀 등을 통해 나타나는 제주 여성의 강한 생활력에 대해 긍정적 답변이 매우 높았다. 이는 제주여성의 특징을 통해 살펴본 제주 여성의 근면성, 자립성, 강인성이 세대 전수를 통해 비슷한 환경을 지속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성향은 사회적 자본에서 네트워크 및 참여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증가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성공적 노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자본의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노후대비를 위해 평생교육체계의 구축으로 노후에도 일을 하면서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즉 성공적 노화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성공적 노화를 노년기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일생을 성공적으로 적응해나가는 과정으로서 보는 생애주기관점으로 볼 때 성공적 노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절대적 부족하고 존재하는 것은 대부분 주로 노년층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년층을 대상으로 풍부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켜줄 지역 및 국가차원의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년여성들의 사회적 자본의 증대를 유인하는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존재로 인한 다양한 관계망을 위한 개인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지역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거주자에 한정했다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려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다양한 직업군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증 연구대상 표본이 260부라는 점도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을 통하여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기은. 2014. “제주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신옥. 2009.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주대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인. 2016. “베이비붐세대의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16(9): 460-472.
- 강성욱. 2014. “중년층의 성공적인 노화인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정희·설연옥. 2012. “중년독신여성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준비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7(2): 127-151.
- 강지애. 201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청순. 2003. “중년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침례신학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 강해자. 2012. “노인의 스트레스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곽현근. 2003. “동네관련 사회자본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
연구』 14(3): 9-285.
- 구혜정. 2002.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대안적 평생교육 탐색”.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귀숙. 2011. “아방도 없고 허난 밥도 없고: 제주4·3의 여성사”. 『4·3과 역사』
11: 65-88.
- 권중돈. 2005.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권현정·박화옥. 2008. “베이비부머세대의 문화자본이 문화활동에 미치는 영향: 문
학복지관점에서”. 『한국노년학』 28(3): 535-553.
- 김경진. 2011. “중년기 부부의 건강한 부부관계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희. 2007. “제주지역 여성이미지의 탐독-대안적 페니스트 지리학의 모색”.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남순. 2009. “중년층 근로자의 노후설계 인식기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동배. 2008.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1): 211-231.
- 김명자. 1989. “중년의 위기감 및 그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숙. 2018. “중년여성의 삶의 의미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혜·신경림. 200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35-52.
- 김민경. 2003.. “향기흡입법이 중년여성의 우울, 스트레스, 갱년기 증상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백수·이정화. 2010. “중년층의 사회적 노후준비 결정요인분석: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1(3): 411-425.
- 김수영·이강훈. 2009. “이전소득의 독거노인가구 빈곤경감 효과”. 『비교,한국노년학』 29(4): 1559-1575
- 김수한·안리라. 2018. “여성관리자의 시간제약과 직장 내 사회자본”. 『한국사회학』 52(1): 39-75.
- 김수현. 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성·최수일. 2010.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3): 97-119.
- 김연지·이주희·이영주. 2018. “중년 후기 성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18(2): 90-97.
- 김영남. 2015. “제주지역 중장년층의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 인식이 노후준비 정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 200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2015. “중·장년층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배우자 존재유무 및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화. 2018.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미. 2004. “중산층 주부의 여성주의 정치학과 사회자본 창출에 관한 연구: 서울 소재 M여성단체 D지회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준홍. 2010. “사회적 자본, 신체활동 그리고 주관적 건강: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통한 정책의 근거 모색”. 『보건과 사회과학』 28: 61-90.
- 김지년. 2015. “대학생의 교육적, 사회적, 가정 환경적 요인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노후인식수준을 매개변인으로”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현·김양호. 2003.. “중년남성의 남성역의식, 직장생활 및 가족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99-120.
- 김태호. 2015.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사회적 자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숙. 1993. “제주도 가정의 혼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숙. 1999. 『제주도 가족과 권당』 서울: 제주대출판부.
- 김혜정. 2015. “시민의 신뢰와 참여에 따른 커뮤니티 웰빙 영향분석: 아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1): 143-164.
- 고승한·김진영. 2010. “제주장수노인의 사회적 부양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탐라문화』 36: 333-388.
- 남기민·이정은. 2012. “노인의 일상스트레스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57: 85-112.
- 류성봉. 201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삶의 질 연구: 노후준비 및 직무만족의 영향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류태건. 2015.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와 효과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현주·김준희. 2014. “중년기의 여가인지가 노후주니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8(2): 74-85.
- 박경란·이영숙. 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2(3):

53-66.

- 박금자. 2000. “중년기 여성의 우울 구조모형”.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선영. 2013. “삶의 의미와 심리적 건강의 관계: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와 의미감 증진 개발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연화. 2011.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과 죽음에 대한 태도”. 부산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윤희. 2017. “중년기의 사회적 활동이 사회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여가 교육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7(2): 330-345.
- 박창제. 2008. “중·고령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75-297.
- 박현식. 2012.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후 관계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58: 281-302.
- 박형란. 2011.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 과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희봉. 2001. “사회자본과 지방정부 경쟁력 제고와 지역 발전전략”. 『한국행정학회』 99-118.
- 박희봉·김명환. 2000.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서울 서초구와 경기 포천군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4)
- 배문조. 2011. “중년기의 성공적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노후생활준비의식이 노후생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1): 45-61.
- 배병룡. 2005. “공공조직 사회자본의 영향요인과 효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4)
- 백인자. 2016. “중년기 여성의 직업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재덕. 2014. “중년층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은퇴태도가 은퇴준비에 미치는 요인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지은·최혜경. 2007. 한국사회외 서구사회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 대한 비교 문화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137-153.
- 변외진·김춘경. 2006. “중년여성의 우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7): 125-139

- 서연숙. 2010. "중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행위와 건강수준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은경. 2011. "수퍼바이지의 완벽주의와 개인 수퍼비전 작업동맹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미현. 2020. "중년기 성인의 성공적 노화인식: Q 방법론 접근".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혜영·유정현. 2002.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 Q 방법론적 접근". 『한국노년학』 22(2): 75-93.
- 송기영. 2018. "장애노인의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순옥. 2012. "중년기 노화불안요인 탐색 및 노화불안과 노후준비도,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상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승희. 2010.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영·어용숙. 2018.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사회적 자본 및 생활만족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30(1), 98-108.
- 심상섭·윤상선. 2014. "어르신 댄스스포츠 및 시니어로빅 참가자의 사회적 자본과 건강증진 생활양식 및 성공적 노화 간의 구조모형. 『한국체육과학회지』 23(3): 419-435.
- 오병훈. 2004.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모델" 『노인정신의학』 8: 33-36.
- 유석춘·장미혜. 2002.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발전연구』 8: 87-125.
- 유철인. 1986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 주변사회에 있어서의 적응방식". 『탐라문화』 5: 71-94.
- 원경립. 2001. "중년기 여성의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연구". 영남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혜·장춘자. 1992. "중년기 여성의 폐경 경험". 『모자간호학회지』 2(1)
- 이묘숙. 2012.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노인의 경제상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학회』 57: 289-313.
- 이미숙·주영아. 2016. "중년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

- 발 및 효과검증”. 『평생교육학연구』 22(3): 87-116.
- 이민주. 2013.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선택·최적화·보상 전략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일. 2007.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의 관계에 대한 소고” 『인제논총』 22(1): 97-111.
- 이소정. 2009.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47: 72-80.
- 이승화. 2006. “한국형 감수성 훈련이 타인관점수용, 대인관계태도 및 상담효과요인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균·최승인. 2016. 노인사회활동 참여 노인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 151-180.
- 이우경. 2008. “중년기 여성의 스트레스, 마음챙김, 자기-慈愛, 정서적 안녕감 간의 관계 구조 분석과 마음챙김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정·성미혜. 2017. “중년후기 여성의 건강지각, 노화불안, 성공적 노화인식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3(3): 181-190.
- 이인자. 2011. “사회자본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경자. 2002. “중년기 근로자의 개인적, 직업적 특성과 노후준비와의 관계”.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경자.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 및 불안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우석. 2009. “사회적 자본과 노인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선. 2001. “콜맨과 부루더의 사회자본론의 비교와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초등교육연구』 16(1): 91-112
- 이재혁. 2000. “시민사회와 시민적 자본: 시장적 관계 모형”. 『사회와 이론』 10: 213-262.
- 이진만. 2013. “조직 내 사회자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창수·김현국·정연수. 2013. “Row 와 Kahn의 성공적 노화 모델에 대한 비평과 향후 과제”. 『한국웰니스학회지』 8(4): 1-11.
- 이현숙. 2009. “직장근로자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선미. 2015.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와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영희. 2004. “중년 기혼여성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우석. 2009. “사회적 자본과 노인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종미. 2012. “중년층의 노후준비 의식이 노후대책에 미치는 영향: 경상북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중철. 2013. “노년기 경제활동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미혜·문미경·최인희·석재은·노혜진. 2013. “여성노인의 노후빈곤현황 및 대응 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성희. 2008. “사회적 관계망이 중년기혼여성의 임파워먼트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보영. 2012.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은희. 2011.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규형. 2013. “중년기의 가족부양부담이 개인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문신·권혜진. 2017. “중년 여성들의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15(2): 493-501.
- 정경희·오영희·황남희·신현구·남효정. 2013. “미래 고령사회 대응 베이비붐세대 및 전·후 세대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규형 .2013. “중년기의 가족부양부담이 개인의 노후준비정도에 미치는 영향: 자

- 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순돌·이현주·최혜지·김고은·이소영. 2012. “한국 중산층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사회적 자본 경험과 의미: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7: 221-259.
- 정여진. 2011. “자녀와의 애착유형에 따라 가족관계가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32(3): 869-893.
- 정연택. 2003. “사회정책 연구의 분석틀로서 사회적 자본: 가능성과 한계”. 『사회과학연구』 14: 299-322.
- 정옥분. 2013.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태연·전경숙 .2007. “자신의 삶에 대한 중년기 사람들의 평가”.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70-71.
- 조은혜. 2017.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자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인근. 2008. “장애학생 통합교육에 관련된 사회자본 형성”.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혜경. 2002. “성공적 노화에 관하 연구: 노인들의 성인학습을 통하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추용·송미영·이근선 .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학회』 43: 135-156.
- 주예심. 2014. “중년층의 노후준비의식과 퇴직태도 및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한영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명화. 2011.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관련변인”..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승인. 201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속의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신덕 역. 1986. 『노년사회학』. Harris, D. K. and Cole, W. E. 1986. Sociology of Aging, 서울: 경문사
- 최은희. 2007.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련. 2011.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활동 참여가 노후준비도 및 생활

-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혜경·권유경 역. 1997. 『성공적인 노화』. Row. J. W and Kahn, R. 1999. 서울: 학지사.
- 통계청. 2019. 『장래가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 통계청. 2019.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 하정연. 2003. “성공적이 노화를 위한 관련변인 연구: 중산층 노인의 SOC모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경혜·노영주. 2000. “중년 여성의 40대 전환기 변화 경험과 대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학회지』 12(1): 67-91.
- 한동희. 2014: “여성노인의 사회자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5(3): 479-500.
- 한미선. 2019: “중·장년층 노후준비와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교직원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금희. 2014. “중년기의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요소 및 노후준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현방. 2001. “성공적인 노화 개념 정의를 위한 문헌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현방·최혜경. 2003. “성공적인 노화 정의를 위한 문헌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45-154,
- 황대준. 2006. 『사회자본의 개념과 교육적 시사점』.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황주연. 2007.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der, Paul S., and Seok-Woo Kwon. 2002. " Social Capital: Prospects For a new Concep, Academy of Managemen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 21-22.
- Angus, J., and Reeve, P. 2006. "Ageism: A threat to “aging well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25(2): 137-152.
- Bellipanni, et al. 2005. "Essential and opposing roles of zebrafish beta-catenins

- in the formation of dorsal axial structures and neurectoderm". 『Development』 133: 1299-1309.
- Bennett, L. A., Wolin, S. J., Reiss, D. and Teitelbaum, M. A. 1987. "Couple at risk for transmission of alcoholism: Protective influences", 『Family Process』 26
- Barber, B. 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 Press』 26(1): 111-129.
- Baltes, P. B. and Baltes. M. M.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and M. M. Baltes (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4.
- Burt, Ronald S. 2004. "Structural Holes and Good Idea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2): 349-399.
- Callahan, J. J. 2018. "Aging in place". 『Generations and Aging Series』 . Routledge. NY.
- Chung, S., Choi, H.,and Lee, S. S. Y. 2014. "Measuring social capital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mixed methods: application of factor analysis and fuzzy-set type approa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7(1): 45-64.
- Coleman, J. C. 1988. "Soci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Cosco, T. D., Prina, A. M., Perales, J., Stephan, B. C.,and Brayne, C. 2014. "Operational definitions of successful aging: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6(3): 373-381
- Depp, C, A. and Jeste, D. V. 2006. "Definitions and predictors of successful ag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larger quantitative studies".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4(1): 6-20.
- Duvall, E. M. 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5th ed)』 .

Philadelphia: Lippincott.

- Elizabeth, A. p., Lynda, A. A., Andrea, Z. L., Larson.,and Eric, B. L. 2004. "Old adults'views of 'successful aging' : How do they compare with researcher's defini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2(2): 211-216.
- Fisher. B. J. 1995. "Successful aging life satisfaction and generativity in later lif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1(3): 239-250.
- Glass, T. A. 2003. "Assessing the success of successful aging".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39(5): 382-383.
- Gould, R. L. 1978. 『Transformation: Growth and change in adult life』 .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H. G. 2002. "Rowe and Kahn's model of successful aging revisited: Positive spirituality-the forgotten factor". 『Gerontologist,』 42(5): 613-620.
- Jung, C. G. 1954.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Papers on child psychology, education and related subject.』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il, B. L., and Carr, D. C. 2017. "Successful aging in the context of the disablement process: Working and volunteering as moderators on the association between chronic conditions and subsequent functional limitation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72(2): 340-350.
- Krugr, A.. 1994. "The midlife transition: crisis or chimera?", 『Psychological Report』 75: 1299-1305.
- Levinson, D. J, Darrow, C. N. Klein, E. B, Levinson, M.H. and Mckee, B.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Y.; Knof.
- Pruchno, R. A., Wilson-Genderson, M., Rose, M., and Cartwright, F. 2010. "Successful aging: Early influences and contemporary characteristics". 『The Gerontologist』 50(6): 821-833.
- Putnam, R. D. 1993a.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 Life". 『The America Projec,』 4(13): 35-42.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NY: Simon and Schuste.
- Row. J. W and Kahn, R.1987. 『Human aging: Usual and succesful Science』 , 237: 143-149.
- Row. J. W and Kahn, R. L.(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 Zacher, H..2015. "Successful aging at work". 『Work Aging and Retirement』 1(1): 4-25.
- Elizabeth, A. P., Lynda, A. A., Andrea, Z. L., Larson.,and Eric, B. L.2004. "Old adults'views of 'successful aging': How do they compare with researcher's defini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2(2): 211-216.
- Strawbridge, W. J., Wallhagen, M. I., and Cohen, R. D.. 2002. "Successful aging and well-being: Self-rated compared with Rowe and Kahn". 『Geronlogist』 42(6): 727-733.

<Abstract>

The Impacts of Social capital and Aging Preparation of Middle-aged Jeju Women on Successful Aging.

Lee, Geun Yo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o, Kwan W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d the social capital level and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old age in middle aged Jeju women and their impacts on successful aging, and to provide basic data on factors for successful aging.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27th, 2020 to May17th, 2020 through a self-report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300 married middle-aged women of age 40 to 59 living in Jeju Cit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ut of the 300 questionnaires, 282 were retrieved, and 260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excluding 22 incomplete surveys. For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variance analysis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5.0.

The study revealed that the highest number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public pension, such as national pension or public employee pension, is important as old age income security. As it is expected that the reliance on public pension for old age income would increase,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strengthen the foundations of public pension to enhance the citizen's old age security.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women in Jeju, the higher the monthly income, the higher the level of trust they showed toward social capital. The level of education and monthly income had meaningful influences on the normative level which is a sub-variant of social capital.

The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and monthly income, the more meaningful impacts on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it had. When it comes to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preparation for old age on successful aging, the higher the level of norms and network & participation for social capital, and the higher the level of physical and emotional preparation level for old age the more positive influences were found.

In conclusion, the regional and national level of efforts and plans to grow social capital as well as to develop programs that form social network for middle-aged women in Jeju are necessary. Also, further studies in regards to establishing social support system that leads to enlargement of social capital for middle-aged Jeju women are needed. In addition, personal efforts for building various network as part of social capital should be prioritized.

Key Words: Social capital, Old age preparation, Successful aging

<부록> **설문지**

NO			
----	--	--	--

**제주지역중년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본 조사는 「제주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를 위한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서로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문항이라도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귀중하고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연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되며, 귀하의 소중한 답변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5월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고 관 우
석사과정 이 근 영

Part I. 노후준비도에 관한 문항

※ 다음 귀하의 노후준비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번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노년기 건강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노후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노후건강을 위한 식생활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유지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음주, 흡연을 가급적 피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노후를 대비하여 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노후를 대비하여 적금, 예금 등의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노후를 위해 수익성 있는 투자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노후 경제적 준비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노후에 지낼 주거지가 준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노후의 인간관계를 위하여 각종모임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노후를 위해 취미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노후를 위해 종교 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연 번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4	노후를 위해 봉사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기업에서 노후생활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행복한 노후를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배우자 및 가족과 함께 활동하고 대화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소외감과 허무를 극복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배우자나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정서적 안정을 위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II. 사회적 자본에 관한 문항

※ 다음은 귀하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골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번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21	나는 주위 사람들을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만나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행정기관을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규칙과 규율을 잘 지키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지역의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친목 모임에 참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할 가까운 친구들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잘 알고 지내는 이웃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몸이 아플 때, 주위에 도움을 줄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III. 성공적인 노화에 관한 문항

※ 다음 귀하의 성공적인 노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2	나는 내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가능한 한 남에게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정신으로 산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지금도 정신이 맑아서 사리분별에 큰 문제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왔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외모를 단정하고 깨끗하게 가꾼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0	나는 내 분수에 맞는 의식주생활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1	나는 평생토록 하고자 하는 활동(일, 취미 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남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연 번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43	나는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배우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는 내가 하는 활동(일, 취미 등)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5	나는 기회가 되면 남을 위해 물질을 기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46	나는 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7	나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48	나의 자녀들은 나에게 효도를 잘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9	나의 자녀들은 형제 자매간에 서로가 우애있게 잘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50	나는 나의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1	나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2	나는 지나온 삶이 보람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3	나에게 중요한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해도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4	나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그것을 내 행동 혹은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	①	②	③	④	⑤

연 번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55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른다면 실망스럽긴 하겠지만, 내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56	나는 타인과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7	나는 젊은 세대의 입장을 잘 수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8	나는 나의 친구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의 입장에 사물들이 어떻게 보일까 생각해보려고 노력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59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화가 났을 때, 잠시 동안이라도 그의 입장에서 서 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0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나는 만약 내가 그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